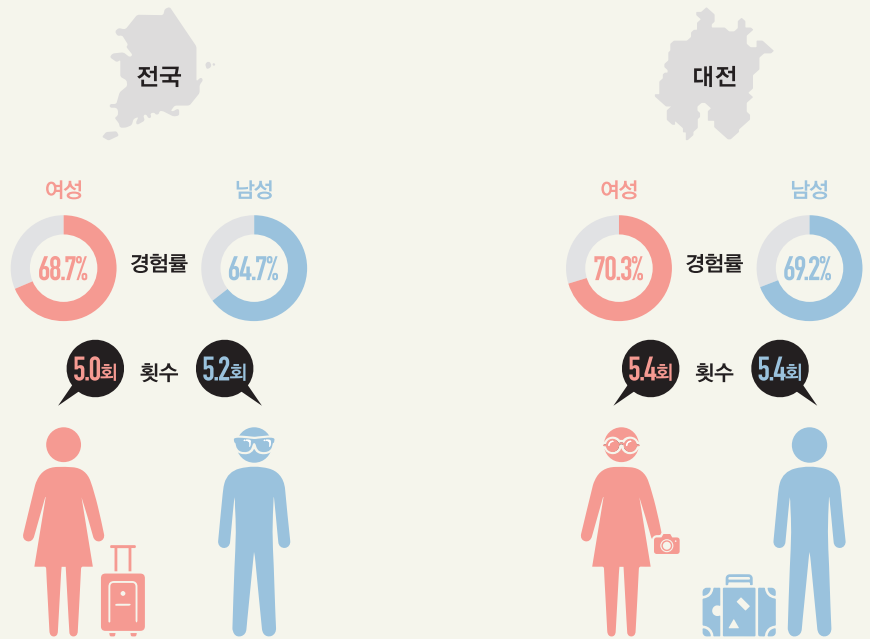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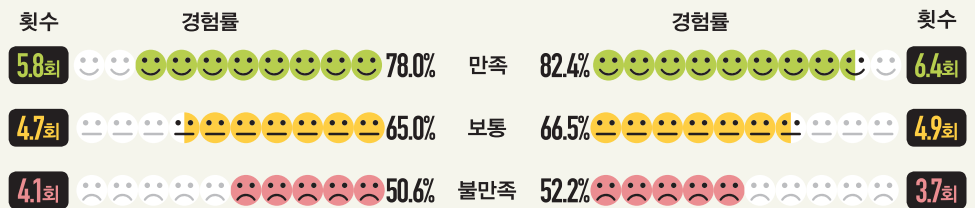
## 대전시민 1년간 국내 여행 경험률 여성 70.3%, 남성 69.2%

2015년 통계청 사회조사에 의하면 조사 시점 기준 지난 1년 동안 대전시 여성의 70.3%, 남성의 69.2%가 관광을 목적으로 국내 여행을 했으며, 여성과 남성의 평균 여행 횟수는 5.4회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국내 관광 여행을 한 여성은 68.7%, 남성은 64.7%로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4.0%p 높았으며, 여성은 평균 5회, 남성은 평균 5.2회 다녀 온 것으로 나타났다. 삶에 대한 만족감으로 본 여행 경험률 및 횟수는 개인의 전반적인 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대전시민 중 82.4%, '보통이다' 66.5%, '불만족이다' 52.2%가 국내 여행을 했으며, 만족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평균 6.4회,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평균 3.7회 다녀왔다. 생활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불만족하는 사람보다 여행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국 및 대전시 국내 관광 여행 경험률 및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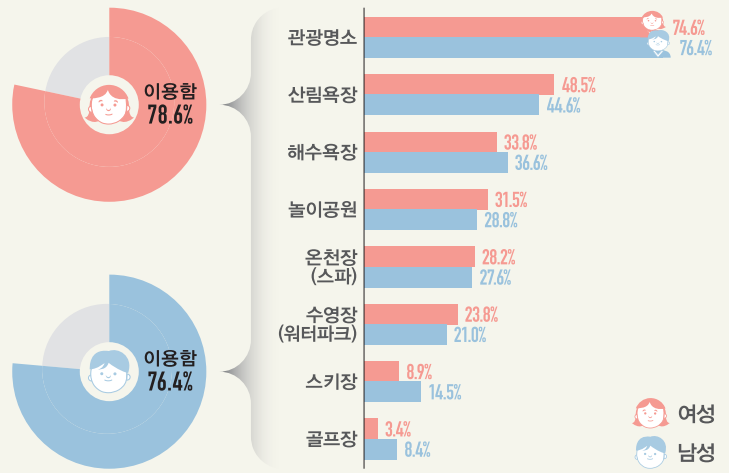
\*조사시점 | 2015년 5월 14일  
 \*경험률은 13세 이상 인구,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관광을목적으로국내여행을한사람들의비율임.  
 \*횟수는 국내 관광 여행 인구 1인당 평균 여행 횟수임.  
 \*삶에 대한만족감은 경제적인 면, 가족관계, 직업, 건강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만족감 (행복도)의정도를말함.  
 \*출처 | 통계청(2015), 사회조사



## 대전 여성 레저시설 이용률 남성보다 2.2%p 높아

대전시 여성의 78.6%, 남성 76.4%가 조사시점 기준 지난 1년 동안 레저 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여성 이용률이 남성보다 2.2%p 높았다. 레저시설 종류별로 이용률을 살펴보면, 여성은 유적지, 국립공원 등 관광명소(74.6%) 이용률이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 삼림욕장 48.5%, 해수욕장 33.8%, 놀이공원 31.5%, 온천장 및 스파 28.2%, 수영장 및 워터파크 23.8%, 스키장 8.9%, 골프장 3.4%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도 관광명소 이용률이 76.4%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삼림욕장(44.6%), 해수욕장(36.6%), 놀이공원(28.8%), 온천장 및 스파(27.6%), 수영장 및 워터파크(21.0%), 스키장(14.5%) 순이며, 골프장이 8.4%로 가장 낮았다.

## 대전시 레저시설 이용률(복수응답)



\*조사시점 | 2015년 5월 1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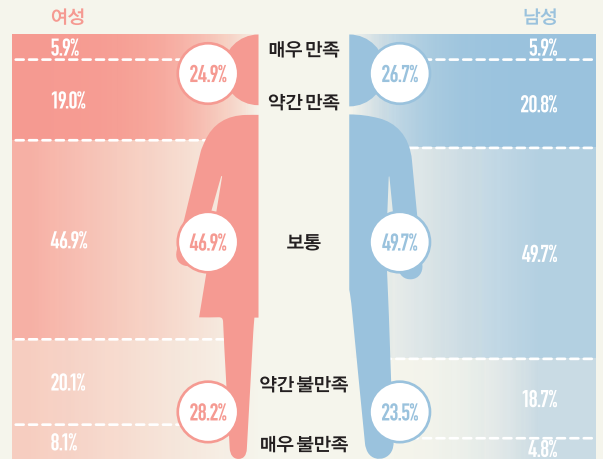
\*이용률은 13세 이상 인구,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레저시설을 이용한 사람들의 비율임.

\*출처 | 통계청(2015), 사회조사

## 만족스러운 여가 생활을 하는 대전 여성 24.9%, 남성 26.7%

2015년 통계청 사회조사의 대전시 여가 활용 만족도를 성별로 살펴 보면, 여성의 5.9%가 '매우 만족한다', 19.0%가 '약간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보통이다' 46.9%, '약간 불만족한다' 20.1%, '매우 불만족한다' 8.1%로 나타났다. 남성의 26.7%(매우 만족 5.9%, 약간 만족 20.8%)가 만족스러운 여가 생활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보통 49.7%, 불만족스러운 여가 생활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3.5%(약간 불만족 18.7%, 매우 불만족 4.8%)로 조사됐다. 평소 여가 활용에 있어서 여성에 비해 남성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대전시 여가 활용 만족도



\*조사시점 | 2015년 5월 1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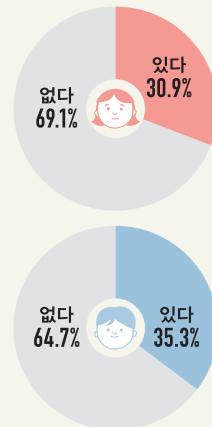
\*13세 이상 인구 기준임.

\*출처 | 통계청(2015),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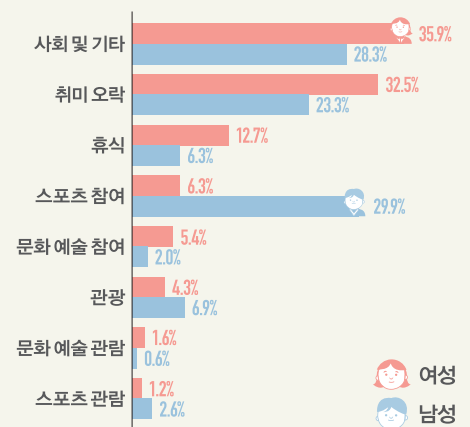
## 대전시민 3명 중 1명은 동호회 활동 참여

대전시민에게 여가 생활을 위한 동호회 활동 참여 여부를 묻는 문항에 여성의 30.9%, 남성의 35.3%가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여성의 주된 동호회 활동은 사회 및 기타(35.9%)로 친목을 위한 모임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취미 오락(32.5%), 휴식(12.7%), 스포츠 참여(6.3%) 순으로 높았으며, 스포츠 관람(1.2%)이 가장 낮았다. 반면 남성은 스포츠 참여가 29.9%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사회 및 기타 28.3%, 취미 오락 23.3%, 관광 6.9%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 예술 관람은 0.6%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 대전시 동호회 활동 여부



## 대전시 동호회 주된 활동



\*조사시점 | 2016년 9월 1일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현재 여가 생활을 위한 동호회 활동 참여 여부 및 주된 활동이 무엇인지 묻는 문항임.

\*출처 | 대전광역시(2016), 『2016 대전의 사회지표』 p401-403, 2016 대전시 사회조사 활용

# #대전 #2017 양성평등주간 #성공적 #함께하는 성평등

## 제9회 대전세종여성정책포럼

### 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강연자|박경은\_가득이심리상담센터 대표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와 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17년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7월 3일, 대전시청 5층 화합실에서 가득이심리상담센터의 박경은 대표와 함께 아내로, 엄마로, 딸로 그리고 일하는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심리적 갈등과 스트레스의 원인 진단, 해소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자리를 마련했다. 도형 및 지문으로 알아보는 성격유형 검사를 통해 여성의 정신건강,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방법 등을 알아봄으로써 치유의 기회를 제공했으며,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제고하는 자리가 됐다.

## 제10회 대전세종여성정책포럼

### 젠더 관점으로 풀어보는 제4차 산업혁명

제10회 대전세종여성정책포럼이 지난 7월 6일 대전세종연구원 2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유재일 대전세종연구원장의 축사로 시작해 김형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디지털 전환과 도시혁신-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김경희 대전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소영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미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빅데이터연구팀장, 이해경 배재대학교 공공정책학과 교수, 차성란 대전대학교 아동교육상담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가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도시모습과 그에 따른 여성의 삶의 변화를 살펴보고 보다 양성평등한 도시혁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발표자| 김형주\_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2017년도 대전광역시 5개 자치구

### 성별영향분석평가대면 컨설팅 실시



대전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는 지난 6월 23일 대덕구를 시작으로 서구(7월 10일), 동구(7월 11일), 중구(7월 11일), 유성구(7월 12일) 순으로 사업대상 성별영향분석평가 대면과 서면 컨설팅을 진행했다. 올해 각 구별로 약 65개 사업이 대상과제로 선정되었다. 시본청은 7월 27일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대상과제 선정 최종 승인 후에 서면과 대면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